

## 21世紀의 古書目錄과 不明 書誌事項의 記載\*

Description of Incompleteness of Bibliographical Matters in the Catalogs of Ancient Books Published in the 21th Century

김 치 우(Kim, Chi-woo)\*\*

### ◁ 목 차 ▷

- |                |                        |
|----------------|------------------------|
| 1. 서 론         | 3.2 간사사항미상             |
| 2. 목록의 종류      | 3.3 판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것 |
| 2.1 목록규칙       |                        |
| 2.2 고서목록       | 4. 결 론                 |
| 3. 불명 서지사항의 기재 | <참고문헌>                 |
| 3.1 편저자사항미상    |                        |

### < 초 록 >

금세기인 21세기에 들어와서 발간된 각종 고서목록의 실태를 알아보고, 불명 서지사항의 기재 방법에 대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21세기에 접어들어서 발간된 고서목록을 조사하여 보니 30종이다. 물론 더 있을 것이다. 이 중 20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서지적으로 요점을 고찰하여 보고, 그 중 기술에서 불명 서지사항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效率的인 방법인지 검토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불명 서지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편저자미상, 간사처미상, 그리고 판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것을 말한다.

要語 : 불명 서지사항, 저자미상, 간사처미상, 판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것

\* 이 논문은 2005학년도 경성대학교 학술지원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sung University Research Grants in 2005)

\*\*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wkim417@ks.ac.kr)

접수일: 2005년 11월 10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15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s about catalogs of ancient books which were published during the 21th century. For this period, there are 30titles of its catalogs that were described the incompleteness of bibliographical matters. 20titles out of these were selected the random sampling.

After surveying them the most efficient method of describing the bibliographical matter proposed each type of incompleteness for bibliographical matters in cataloging.

Key words : Unknown bibliographical matters, Anonymous authorship, Unknown the place of publication, Incompleteness data of the printing style

K C I

## 1. 서론

고서목록은 기술의 통일성이 없으나 그 자체가 지니는 가치는 실로 크다. 그 첫째 이유는 거기에 수록된 고서는 민족의 혼이 담긴 지적 소산으로 자료적 가치가 아주 크다는 것이다. 둘째 이유는 고서목록은 목록규칙의 역할을 겸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고서목록을 조사하고, 수집하여 다각도로 분석 검토하여 보는 것은 실로 의의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목록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고려부터 1923년 이전까지는 과거의 목록 1923년부터 1954년 이전까지는 목록규칙 도입시기, 1954년부터 1980년 이전까지는 목록규칙의 국제 표준화 시기, 1980년부터 현재까지는 자동화목록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문헌목록도 여기에 준해서 작성되었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하고자하는 목록은 고서책자목록이다. 목록은 형태별로 흔히 카드목록과 책자목록으로 구분한다. 오늘날의 책자목록은 자의적으로 편찬된 것이 많다. 그러므로 목록규칙과 별개로 작성된 것이 많으며, 오히려 역으로 목록규칙 제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도 있다. 그래서 목록의 확실한 발전을 알기 위해서는 책자목록에 나타난 목록의 기술형식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고서책자목록에 대해서만 분석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고서목록이다. 이 시기에는 실로 많은 고서목록이 발간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비매품으로 발간되어서 입수하기는 물론, 현황조차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다년간 그 수집에 노력한 결과 상당한 종류의 고서목록을 입수하여 서지사항을 검토하여 보았다. 제일 먼저 “20세기 중기의 고서목록과 판본기술”에 대해서 고찰하여보고, 그 다음으로 “20세기 말기의 고서목록과 판식기술”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았다. 그리고 본고에서는 마지막으로 “21세기의 고서목록과 불명 서지사항의 기재”에 대해서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상의 3편의 논문을 참고하면 1923년부터 지금까지 발간된 근세 이후의 고서목록의 종류와 중요 기술의 특성을 명확하

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불명 서지사항인 저자사항미상, 간사사항미상과 판식 자체나 그 일부가 없는 것을 기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분석 검토 하여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 목록에서 어떤 사항이 없으면 ‘未詳’이나 ‘不明’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나 고서목록에서도 그렇게 기재하면 과연 효율적인 목록이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서에는 불명인 서지사항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재하기가 너무 번잡할 뿐만 아니라 불명의 서지사항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도 많기 때문이다.

## 2. 목록의 종류

### 2.1 목록규칙

2000년부터 현재까지도 자동화목록 시기이다 물론 목록의 자동화 시기는 1800년 이후부터이다. 2000년 이후에 나온 목록규칙으로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 : 고서용」과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고서용」 등이 있다. 그러나 이때에 나온 고서책자목록이나 고서해제목록은 우리나라 고서의 특성을 살려서 기술하였으나 역시 양식은 각양각색이다.

### 2.2 고서목록

2000년부터 현재까지의 고서목록은 서지사항만을 기술한 목록으로 자동화목록 시기에도 많이 편찬되었다. 이 시기의 목록 기술형식은 역시 목록규칙에 의거한 것과 전혀 다른 독자적인 양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목록들도 판종이나 판식을 많이 기재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해제목록도 많이 발간되었다.

이때에 발간된 고서목록은 조사된 바로 30종 정도이다. 그 체제를 보면 수록

목록 수가 적고, 해제를 붙인 목록이 많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많은 고서를 소장한 여러 소장처의 고서목록은 이미 그 이전에 분량관계상 해제 없이 발간되었으므로 그렇게 새로 작성될 고서목록이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21세기에 발간된 30종 중 20종에 대해서는 편찬체제를 그 연대순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수록된 목록을 1개씩 예로 제시하여 기술의 특성을 알게 하고, 이어서 불명 서지사항을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예시된 목록에는 기입의 본체만을 기재하되 판식이 주기에 있는 것은 그 판식 주기만을 기재하고, 기타 주기는 일체 생략코자 하며, 청구번호가 있는 것은 목록의 맨 끝에 원괄호로 묶어서 기재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머지 3종에 대해서는 고서책자목록을 이용자에게 참고가 되도록 편찬 연대순으로 편찬처와 서명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예로 제시된 개개의 목록기술은 지면관계상 각 사항을 한 문단 형식으로 연결하여 기재하되, 그 연결되는 부분은 ‘△’표를 하였다. 그리고 그 목록이 수록된 고서책자목록의 해당 지면은 그 예시 목록 바로 위에 있는 설명문 끝에서 ‘(同目錄, 何面例)’라고 원괄호로 묶어 표시하였다

1. 「장서각한글자료해제」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고서 중 국어학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한글자료 240종에 대한 목록으로 同研究院에서 2000년에 발간되었다.

배열은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청구기호는 서명표목 다음에 원괄호로 묶어 附記하였는데 귀중본은 ‘귀’로, 장서각 도서는 ‘장서각’으로, 구입도서는 알파벳으로 각각 그 앞에 표시했다. 사용된 분류는 사분법이다. 목록의 기술은 주로 천혜봉식 고서목록규칙에 의거했으나 서명을 표출으로 하고 각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판식은 형태사항의 삽도와 크기 사이에 기재하였다. 목록 아래에는 해제가 붙어 있다. (同目錄, 327面例)

御製諭威境南北關大小民人等綸音(장서각 2-1878). △ 正祖(朝鮮, 1752~1800)撰. 活字本(丁酉字), 木板本(諺解). 1788(正祖 12). △ 1冊(9張). 四周單邊. 半郭 24.8 × 17.1cm, 25.3 × 16.9 cm(諺解). 有界. 半葉 10行18字(漢文), 12行22字(諺

解), 註雙行. 上二葉花紋魚尾 30.7 × 20.8 cm. 線裝

저자사항이나 간사사항이 불명인 것은 ‘何何未詳’이라고 기재하였다. 판식 자체가 없거나 그 일부가 없는 것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판식에서 계선이 있는 것은 ‘有界’라고 하고, 없는 것은 ‘無界’라고 기재하였다.

2. 「古書目錄」은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 자료실에서 소장한 고서 10,943책에 대한 목록으로 同研究院에서 2000년에 발간하였다.

배열은 경사자집 사분법 아래에서 서명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청구기호는 목록의 오른쪽 上端인 서명표목의 뒤에 기재하였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수록된 안동 오 선생 기증도서는 서명을 표출하여 배열하였으나 일정한 기준이 없다. 목록의 기술은 천혜봉 저 「古書分類目錄法(上卷)」에 의하여 기술하였으나 서명을 표목으로 하였다. (同目錄102面例)

東醫寶鑑 (C6-2) △ 許浚(?-1615)奉教撰. 木板. 純祖14年(1814)重刊. △ 目錄, 23卷, 合25冊, 圖. 四周雙邊. 半郭 25.3 × 18 cm. 有界. 半葉 10行 字數不同. 內向二葉花紋魚尾. 29.5 × 19.5 cm. 線裝

저자사항이나 간사사항이 불명인 것은 각괄호 속에 ‘何何未詳’이라고 기재하였다. 판식 자체가 없거나 그 일부가 없는 것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판식에서 계선이 있는 것은 ‘有界’라고 하고, 없는 것은 ‘無界’라고 기재하였다.

3. 「古書·古文書目錄(味山文庫)」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이 소장하여 지정한 미산문고의 고서 총 1,478종 5,792책과 고문서 2,406점의 목록을 수록하여 2000년에 동도서관에서 발간하였다. 고서에는 중국 또는 일본인에 의해 저술되거나 간사된 것 그리고 탁본류를 포함하였다.

배열은 고서와 고문서로 구분하고, 청구기호순으로 열거하였으며, 서명표목 위에는 일련번호를 붙였다. 청구기호는 목록의 오른쪽 上端에 있는 일련번호 뒤에 기재하였다. 권말에는 자모순으로 배열한 서명색인과 편·저자명색인을 구분하여 첨부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韓國十進分類表」 제3판에 의했다. 목록의 기술은 자관의 방법에 의했다. 판식은 형태사항의 삽도와 크기 표시 사이에서

기재하였다. (同目錄, 170面例)

1443 (999.11 안동김) △ 安東金氏世譜 △ 木活字本 △ 33卷5冊 : 插圖, 四周單邊, 半廓 27.1 × 19.9 cm. 行數不定24字, 註雙行. 上下向四瓣黑魚尾(序文은 內向黑魚尾); 35.2 × 23.25 cm

저자사항이나 간사사항이 불명인 것은 각괄호 속에 ‘何何未詳’이라고 기재하였다. 판식 자체가 없거나 그 중 일부가 없는 것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판식에서 계선이 있는 것은 ‘有界’라고 하고, 없는 것은 생략하였다.

4. 「古書解題」는 안동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된 고서의 해제 목록으로 현재 3집까지 同圖書館에서 발간되었다. 그 중 1집은 1945년 이전에 간행된 간본으로서 일반고서 140여종, 문집 680여종을 수록하여 2000년에 발간하고, 2집은 경서류 34종, 문집류 274종, 경전류 25종, 족보 5종, 지지 10종 모두 400여종을 수록하여 2001년에 간행하였으며, 3집은 문집류 259종을 수록하여 2002년에 발행하였다.

배열은 서명 가나다순으로 하고 권두에는 한글 자모순으로 배열한 서명색인과 편·저자명색인을 두었다. 청구기호는 서명표목의 바로 뒤에 기재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KDC)」 3판에 따랐다. 목록의 기술은 천혜봉 저 「고서분류목록법(하권)」에 의거하였으나 서명을 표목으로 하였으며, 구두법은 「한국목록기술규칙(3판)」에 준하였다. 목록 아래에 붙은 해제에는 서명, 소장사항, 저지사항을 기재한 다음 저자를 소개하고 간행경위, 내용평가의 순으로 기술하였다.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람, 저자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어려운 용어나 문구에 대해서는 주석을 단 것이 특징이다. (同目錄, 제1집, 545面例)

梅軒照影 (古西 811.9 정67a) △ 鄭煜 (1708~1770) : 字 汝輝, 號 梅軒, 本貫 迎日. △ 木板本. - [發行事項不明]. △ 4卷2冊 : 30.9 × 20.6cm. △ 四周雙邊, 半匡 19.4 × 15.7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저자사항이나 간사사항이 불명인 것은 각괄호 속에 ‘何何不明’이라고 기재하였다. 판식 자체가 없거나 그 일부가 없는 것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판식에서

계선이 있는 것은 ‘有界’라고 하고, 없는 것은 ‘無界’라고 기재하였다.

5. 「韓國銀行古書解題」는 한국은행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 407종, 2,371책을 수록하여 同銀行에서 2001년에 발간하였다.

배열은 유별로 십구분하고, 그 아래에서 주제별로 세부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열거하였다. 청구기호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권말에는 서명과 편·저자명으로 구분하여 한글 자모순으로 작성한 색인을 첨부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한은도서십진분류표』에 따랐다. 목록의 기술은 「한국문헌자동화기술규칙: 고서용」에 의거하였다. 그리고 회구본 64종에 대해서는 서명 뒤에 별표 표시를 한 개 하고, 귀중본 5종에 대해서는 별표 표시를 두 개 하였다. 목록 아래에는 해제를 붙였다. (同目錄, 75面例)

동몽선습언해 ★ △ 童蒙先習諺解 / 朴世茂(朝鮮)撰. -- 木板本. --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後刷] △ 1冊: 四周雙邊 半郭 22 × 16 cm, 有界, 10行16字, 上白魚尾: 29.2 × 19.3 cm

저자사항이나 간사사항이 불명인 것은 각괄호 속에 ‘何何未詳’이라고 기재하였다. 판식 자체가 없거나 그 일부가 없는 것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판식에서 계선이 있는 것은 ‘有界’라고 하고, 없는 것은 ‘無界’라고 기재하였다.

6. 「海外典籍文化財調査目錄(日本 宮內廳 書陵部 韓國本 目錄)」은 본 서릉부에 소장된 고서 636종 4,678책에 대한 목록으로 한국해외전적조사위원회에서 2001년에 간행되었다.

배열은 경사자집 사부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와 속으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였다. 청구기호는 목록의 맨 아래에 ‘分類’라 하고 표시하였다. 기술은 천혜봉식 고서목록규칙에 의거하였으나 서명을 표목으로 하였다. (同目錄, 112面例)

正氣錄 △ 高敬命(1533~1592)著, 林聖憲(朝鮮)編. 木板本. [刊年未詳]. △ 1冊. 圖. 四周雙邊, 半郭 20.4 × 15.5 cm. 有界, 半葉 10行 18字, 註雙行 內向二葉花文魚尾. 30.8 × 19.8 cm. 線裝. 楮紙. 分類: 303-107.

저자사항이나 간사사항이 불명인 것은 각괄호 속에 ‘何何未詳’이라고 기재하였다. 판식 자체가 없거나 그 일부가 없는 것은 ‘無何何’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판식에서 계선이 있는 것은 ‘有界’라고 하고, 없는 것은 ‘無界’라고 기재하였다.

7. 『古書目錄(南齋文庫, 第1輯)』은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의 南齋文庫에 소장된 韓中日 三國의 고서 4,264종 6,100책에 대한 목록으로 2001년에 동도서관에서 발간되었다. 여기에는 주로 1910년 이전에 발간된 고서를 수록하였다. 그러나 1945년까지 발간된 고서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및 그 이후에 간행된 자료로서 고서에 포함시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수록하였다.

배열은 청구기호순으로 하고 맨 위에 일련번호를 붙였다. 청구기호는 목록의 우측 상단인 일련번호 뒤에서 표시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한국십진분류표』 제3판에 의거했다. 목록의 기술은 자관의 방법에 의거했다. (同目錄, 252面例)

1890 [648 기묘제] △ 己卯諸賢隨筆 △ 木板本. △ 1冊(84張). 四周單邊, 半廓 24.5 × 17.3 cm, 無界, 行字數不定, 無魚尾(卷頭는 上下內瓣黑魚尾); 30.9 × 20.5 cm.

저자사항이나 간사사항이 불명인 것은 각괄호 속에 ‘何何未詳’이라고 기재하였다. 판식 자체가 없거나 그 일부가 없는 것은 ‘無何何’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판식에서 계선이 있는 것은 ‘有界’라고 하고, 없는 것은 ‘無界’라고 기재하였다.

8. 『蘇珊文庫目錄(古書篇)』은 2001년 동국대학교 경주도서관의 소호문고에 소장된 고서 212종에 대한 목록으로 동도서관에서 2001년에 발간되었다. 여기에는 고서 외에도 일반도서, 고문서, 덕봉선생문집판목, 유품류, 이근우선생기탁본 등이 수록되어 있다.

배열은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청구기호는 목록의 우측 상단에 표시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제4판)』이다. 고서의 청구기호의 앞에는 별치기호 ‘D’를 부여하였다. 목록의 기술은 자관의 고서목록규칙에 의거했다. (同目錄, 22面例)

(D990 叢98 배) △ 百弗庵先生言行錄 / 崔興遠(朝鮮)事蹟. - 木板本. [刊年不明]. 7卷3冊 ; 四周雙邊 半葉 21.4 × 17.3 cm 有界 半葉 10行18字 註雙行 內向二葉花紋魚尾 29.2 × 20.3 cm.

저자사항이나 간사사항이 불명인 것은 각괄호 속에 ‘何何未詳’이라고 기재하였다. 판식 자체가 없거나 그 일부가 없는 것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계선이 있는 것은 ‘有界’라고 하고, 없는 것은 ‘無界’라고 기재하였다.

9. 「충북의 판목 특별전」은 청주고인쇄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으로 전시한 충청북도에서 개관한 판목 27종에 대한 목록으로 동박물관에서 2001년에 간행되었다.

배열은 관판, 사찰판, 祠院版, 사가판, 詩箋紙版 등으로 구분하고, 무순으로 배열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없다. 기술은 간략식으로 서명을 앞세우고 시대(간년)와 판목의 크기를 기재하고, 이어서 소장처를 명기하고 있다. 목록의 아래에는 해제가 첨가되어 있다. (同目錄, 36面例)

남충장시고 판목 △ 南忠壯詩稿 版木 △ 조선(1784년) △ 46.5 cm × 23 cm

저자사항, 판식은 기술되어 있지 않고, 해제에서만 언급되어 있다.

10. 「靑河文庫目錄」은 2002년 동국대학교 경주도서관의 靑河文庫에 소장된 고서 42종 95책에 대한 목록으로 동도서관에서 2002년에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그 외에도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에 대한 목록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서목록은 小數에 불과하다.

배열은 서명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청구기호는 목록의 우측 상단 서명 뒤에 표시되어 있다. 사용된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이다. 목록의 기술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 기술규칙」에 의거했다. (同目錄, 153面例)

儒胥必知 (D718.01 유23) △ 木板本 -- 1冊(52장) ; 四周單邊 ; 半廓 22 × 15 cm. 有界 半葉 12行22字 內向二葉花紋魚尾 28.5 × 20.3 cm.

저자사항이나 간사사항이 불명인 것은 일체 생략하였다. 판식 자체가 없거나 그 일부가 없는 것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계선이 있는 것은 ‘有界’라고 하고, 없는 것은 ‘無界’라고 기재하였다.

11. 「梵魚寺聖寶文化財 解說集」은 범어사정보박물관에 소장된 고서의 목판본과 활자본의 목록으로 동박물관에 2002년에 발간되었다.

배열은 10개의 관용서명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개개의 서명을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였다. 청구기호는 우측 상단 서명 뒤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그 앞에 ‘고’자를 붙였다. 사용된 분류는 없다. 목록의 기술은 자의적인 방법에 의거했으며, 판식은 형태사항의 삽도와 크기 표시 사이에 기재하였다. 다수의 목록에는 그 아래에 해제가 붙어 있다. (同目錄, 134面例)

妙法蓮華經 (고35) △ 戒環 解 ; 鳩摩羅什 譯. - 木板本. - 固城(無量寺) : 法泉寺, 肅宗37(1711) △ 1冊(零本) 線裝 : 圖 2張 : 內向2葉花紋魚尾. 界線, 8行13字. 四周雙邊, 內邊郭 20.2 × 15.5 cm ; 31.2 × 21.3 cm.

저자사항이나 간사사항이 불명인 것과 판식은 생략하였다.

12. 「조선왕실의 책」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76종에 대한 특별전의 전시목록으로 동연구원에서 2002년에 발간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실록, 의례, 반차도, 활기, 선원록, 이십공신회맹축, 열성어필, 지도 등 주로 미공개된 문헌들이다.

배열은 서명을 표출하고 무순으로 배열하고 그 앞에 일련번호를 붙였다. 청구기호는 맨 끝에 붙어있다. 사용된 분류는 없다. 기술은 서명을 표목으로 하되 한자 서명 앞에 한글로 표기하였다. 기술은 간사년, 책수, 판종 및 크기로 하고 끝에는 장서각 소장번호를 기재하였다. (同目錄, 76面)

42. △ 천자문 千字文 △ The Thousand-Character Essay △ 19C 전후, 1책(42장), 필사본, 楮紙, 40.2 × 26.3 cm, 장서각 소장번호 1-205

저자사항은 해제에서 설명되어 있고, 판식은 생략되어 있다.

13. 「日本蓬左文庫韓國典籍」은 일본 봉좌문고에 소장된 한국본고서 14종 2,803권 1,386책의 목록으로 지식산업사에서 2003년에 발간되었다.

배열은 경사자집 사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와 속으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나열하고 그 앞에 일련번호를 붙였다. 청구기호는 맨 끝이나 내용주기 앞에 ‘分類’라 하고 표시되어 있다. 사용된 분류는 독자적인 것 같다. 목록의 기술은 천혜봉저 「고서분류목록법(하권)」에 의거했으나 서명을 표목으로 하였다. 목록의 아래에는 상세한 해제가 붙어있다. (同目錄, 127面例)

43) 內訓, 卷1-3 / 昭惠王后韓氏 (1437~1504) 撰 - 補鑄乙亥字版 - 宣祖6(1573) 印 △ 3卷 4冊 : 四周雙邊 半郭 22 × 14.3 cm, 有界, 漢文附口訣 9行 17字 註雙行, 大黑口, 內向3葉花紋魚尾 ; 33.2 × 20 cm. 分類 : 蓬佐 167-8.

저자사항이나 간사사항이 불명인 것은 각괄호 속에 ‘何何未詳’이라고 기재하였다. 판식 자체가 없거나 그 일부가 없는 것은 ‘無何何’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판식에서 계선이 있는 것은 ‘有界’라고 하고, 없는 것은 ‘無界’라고 기재하였다.

14. 「海南綠雨堂의 古文獻」은 해남녹우당에 소장된 1,425책에 목록으로 송일기·노기춘 두 분이 공편한 것으로 태학사에서 2책으로 2003년에 간행하였다. 그 중 문헌목록은 제1책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한국본목록과 중국본목록으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배열은 경사자집 사분법으로 대별하고, 그 아래에서 유로 세분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없다. 기술은 독자적인 방법에 의거했으며, 판식은 맨 앞의 주기사항에 표시하였다. (同目錄, 419面例)

포은선생문집 △ 圃隱先生文集 / 鄭夢周(133-1392) 著. - 木板本. - [1585 序], 2冊(年譜 포함), 32.2 × 22.3 cm. △ 四周單邊 半郭: 22.5 × 18 cm, 有界, 10行18字 (註雙行), 魚尾: 上下內向3葉花紋魚尾

저자사항이나 간사사항이 불명인 것은 ‘何何未詳’이라고 기재하였다. 판식 자체가 없거나 그 일부가 없는 것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판식에서 계선이 있는 것은

‘有界’라고 하고, 없는 것은 ‘無界’라고 기재하였다.

15. 「빛나는 옛 책들」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해전 송성문 선생께서 기증 받은 고문헌 46건 101점에 대한 전시목록으로 동박물관에서 2003년에 간행하였다. 이 중 고서가 42건 97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타 회화 2건2점, 서예 1건1점, 고문서 1건1점이다. 편찬체제는 도판으로 되어 있으며, 부록에는 도판목록이 첨부되어 있다.

배열은 불교서적과 일반서적으로 구분하여 무순으로 나열하고 그 앞에 일련번호를 붙였다. 사용된 분류는 없다. 목록의 기술은 서명을 표목으로 한자서명의 위에 한글로 표기하였으며, 판식은 생략하였다. (同目錄, 160面例)

23. △ 백지묵서묘법연화경 제7권 △ 白紙墨書妙法蓮華經 第7卷 △ 1405年(朝鮮太宗5) △ 35.6 × 12.7 cm △ 보물 1139호(증3465)

저자사항이나 간사사항이 불명인 것과 판식은 생략하였다.

16. 「한글문헌 해제」는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글문헌자료 95종에 대한 목록으로 동사업회에서 2003년에 발간하였다.

배열은 서명을 별도로 한글로 표출하고 한자서명을 원괄호 속에 묶어 부기한 다음 그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나열하였다. 사용된 분류는 없다. 목록의 기술은 서명, 편·저자, 간행년도, 판종, 간행종류, 권수 및 책수, 책 크기, 판면(반광) 크기, 판식, 판심, 행판, 간행처, 지질 등을 표로 만들어 기재하도록 하였다. 목록의 아래에는 상세한 해제가 붙어있다. (同目錄, 218面例)

어록해 △ 남이성(南二星) 위음 △ 조선 헌종 10년(1669, 己酉) △ 목판본(木板本)  
△ 정양(鄭養)의 「어록해」를 개수하여 간행 △ 1책 범례 2장 본문 40장 발문 3장, 모두 45장 △ 가로 20.0cm × 세로 30.5cm △ 가로 15.7cm × 세로 20.4cm △ 사주 쌍변 유계 △ 상하 내향 이엽 화문어미 △ 1면 8간, 1간 대자 1행 소자 2행 △ 교서관(校書館) △ 닥지(楮紙)

저자사항이나 간행년도가 불명인 것은 ‘未詳’이라고 기재하고, 간행처가 불명인 것은 생략하였다. 판식은 광곽의 종류와 계선을 기재하고, 어미는 판식과 구분

하여 기재하였다. 그리고 판식에서 계선이 있는 것은 ‘有界’라고 하고, 없는 것은 ‘無界’라고 기재하였다.

17. 「古書綜合目錄」은 계명대학교 개교50주년기념으로 동대학교 동산도서관에서 2004년에 발간하였다. 본 목록은 同圖書館에 소장된 63,849책의 고서 중에서 서지입력된 61,215책을 수록한 방대한 목록이다.

배열은 유별로 대별한 다음 서명 가나다순으로 하였다. 청구기호는 목록 우측 상단 서명 뒤에서 표시하였다. 권말에는 서명색인과 편·저자명색인을 붙였다. 분류는 「한국십진분류법」을 주로 하고, 자관의 고문헌분류법을 부수적으로 사용하였다. 목록의 기술의 형식은 1987년에 同大學校 중앙도서관에서 간행된 「고서 목록」처럼 백린편 「古書目錄規則」에 의거하고, ISBD의 구두법을 적용하였다. (同目錄, 273面例)

己卯諸賢隨筆 (고741.36 기묘제현) △ 趙性教 [朝鮮]編. - 木板本. - 1875(高宗 12) △ 1冊; 29.4 × 20 cm. - 東裝 - 四周單邊 半郭 19 × 15.8 cm, 無界, 6行18字, 無魚尾.

저자사항이나 간사사항이 불명인 것은 ‘何何未詳’이라고 기재하였다. 판식 자체가 없거나 그 일부가 없는 것은 ‘無何何’라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판식에서 계선이 있는 것은 ‘有界’라고 하고, 없는 것은 ‘無界’라고 기재하였다.

18. 「목활자로 보는 옛 인쇄문화(기증고서목록편)」은 심재은 선생이 국립진주박물관에 기증한 고서적 217종에 대한 목록으로 동박물관에서 2004년에 발간하였다. 이 고서적 목록에 앞서 심재은 기증유물, 관련전시유물, 한국의 목활자와 옛 인쇄문화, 목활자 인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특별논고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활자와 목활자본을 아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배열은 간본을 심씨 목활자본, 목활자본, 목판본, 기타판본으로 구분하여 서명의 가나다순으로 나열하고, 그 앞에 일련번호를 붙였다. 사용된 분류는 없다. 목록의 기술은 서명을 표출하고 자의적인 방법으로 하였다. 목록의 아래에는 간단한 해제가 붙어 있다. (同目錄, 122面例)

145. 무계만집 武溪漫輯 △ 송병선(宋秉璿) 저, 목판본, 1887 △ 6卷3冊, 30.8 × 20.4 cm △ 四周單邊, 10행20자, 上下內向四瓣花紋魚尾 △ 半匡: 20.7 × 15.8 cm

저자사항이나 간사사항이 불명인 것은 생략하고, 간사사항이 미상인 것은 ‘미상’이라고 기재하였다. 판식 자체가 없거나 그 일부가 없는 것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판식에서 계선이 있는 것은 ‘有界’라고 하고, 없는 것은 ‘無界’라고 기재하였다.

19. 「하바드 燕京圖書館 韓國貴重本解題」는 同圖書館에 소장된 한국본 귀중고서 3,850 여종에 대한 해제목록으로 尹忠南·金成煥에 의해서 편찬되어 경인문화사에서 5책으로 2005년에 발간하였다. 제1책에서 제4책까지가 목록이고, 제5책이 색인이다.

배열은 청구기호순으로 되어 있다. 청구기호는 목록의 맨 위에 표시되어 있으며 한국자료에는 ‘K’란 별치기호를, 그리고 한국본 귀중자료에는 ‘TK’란 별치기호를 붙이고 있다. 분류는 1997년 이전에는 LC, 그 이후에는 연칭도서관 분류법이 적용되었다. 목록의 기술은 서명, 저자명, 간행사항, 권책수, 판본 및 기타로 되어 있다. 해제는 목록의 우측에 붙어 있다. (同目錄, 173面例)

TK 1822/4439 △ 地裝菩薩本願經 △ Chijang posal ponw<o>ngy<o>ng △ Fadeng 法燈 譯 △ [간행지 미상]: [간행처 미상] △ [간행년 미상] △ 3권 1책, 28 cm △ 목판본

저자사항이 미상인 것은 생략하고, 간행사항이 미상인 것은 角括弧 속에 간행지 미상, 간행처 미상, 간행년 미상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판식의 기재는 생략하였다.

20. 「尹拯家 所藏 門中文庫의 典籍目錄」은 조선 중기 숙종 때 소론의 영수였던 明齋 尹拯家에서 전래되어 오든 고서 693종에 대한 목록이다. 본 목록은 단행본으로 발간된 것이 아니고 2005년 한성대학교 박영란의 석사학위논문인 「明齋 尹拯家 所藏 門中文庫의 典籍에 관한 書誌的 研究」의 부록으로 첨부하여 간행된 것이다.

배열의 기준은 서명과 관리번호에 의한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분류는 사분

법에 의했으나 일부는 분류되지 않는 것도 있다. (同目錄, 75面例)

명제D03 21 △ 德村先生集/ 梁得中(1665-1742). 木活字本 (지갯다리획 印書體字).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純祖 6(1806). △ 10卷5冊: 四周單邊 半郭 21.6 × 15.1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小黑口; 31.5 × 19.7 cm.

저자사항이 미상인 것은 생략하고, 간행사항이 미상인 것은 角括弧 속에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되지 않은 기타 2000년부터 발간된 고서책자목록은 모두 10 종이 있다.

(1) 2000년 경인문화사 「韓國歷代文集叢書目錄 (I-III)」 (2) 2001년 국사편찬위원회의 「해외소재 한국사자료 수집목록(1-5)」. (3) 2001년 문화관광부의 「한글 옛 문헌 정보조사연구」. (4) 2002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藏書閣所藏儀軌解題」. (5) 2002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藏書閣所藏謄錄解題」. (6) 2002년 서울역사박물관의 「기증유물목록(1-2)」. (7) 2002년 청주고인쇄박물관의 「(한국) 고활자 특별전」. (8) 2002년 범어사 정보박물관의 「범어사정보박물관 명품도록」. (9) 2003년 웅진북스의 「(하바드대학 연칭도서관 소장의) 한국고서들」. (10) 2005년 국립제주박물관의 「이익태 목사가 남긴 기록」.

먼저 표본으로 제시한 고서목록 20종과 바로 앞에서 간략식으로 제시한 고서목록 10종, 모두 30종으로 다음과 같이 22개의 간행처에서 발간되었다.

(1) 국립제주박물관 ⇒ 1종 (2) 개명대학교 동산도서관 ⇒ 1종 (3) 경인문화사 ⇒ 2종 (4) 국립중앙박물관 ⇒ 1종 (5) 국립진주박물관 ⇒ 1종. (6) 국사편찬위원회 ⇒ 1종. (7) 동국대학교 경주도서관 ⇒ 2종. (8) 문화관광부 ⇒ 1종. (9) 박영란 ⇒ 1종. (10) 범어사정보박물관 ⇒ 2종. (1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1종 (12) 서울역사박물관 ⇒ 1종. (13) 송일기·노기춘 ⇒ 1종. (14) 안동대학교 도서관 ⇒ 1종. (15)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 2종. (16) 용인대학교전통문화연구소 ⇒ 1종. (17) 웅진북스 ⇒ 1종 (18) 한국해외전적조사연구회 ⇒ 1종. (19) 지식산업사 ⇒ 1종. (20) 청주고인쇄박물관 ⇒ 2종. (21) 한국은행 ⇒ 1종. (22)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 4종.

20세기 중기인 1800년 이전에 발간되어 2000년 이후에도 간행이 계속된 문헌 목록은 아래 3종이 있다. 이 3종은 역시 ‘20세기 중기의 고서목록과 판식기술’에 언급되어 있다.

(1) 2002-4년 부산시립도서관의 「(부산시민도서관 소장 귀중본) 도서해제」 5-7집. 그 이전에 1집은 1969년, 2집은 1970년, 3집은 1971년, 4집은 1974년, 5집은 2002년, 6집은 2003년, 7집은 2004년에 간행된 바 있다. (2) 2003-4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선본해제」 5집-6집. 그 이전에 1집은 1970년, 2집은 1971년, 3집은 1972년, 4집은 1973년에 간행된 바 있다. (3) 2002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존경각의 「고서목록」 3집. 그 이전에 1집은 1979년, 2집은 1981년에 同大學校 중앙도서관에서 각각 간행된 바 있다.

그리고 20세기 말기인 1800년 이후에 발간되어 21세기인 2000년 이후까지 간행이 계속된 문헌목록은 3종이다. 이 3종 20세기 말기의 고서목록에 소개되어 있다.

(1) 2000-2년 서울대학교 규장각의 「규장각도서한국본도서해제(속집)」 7집-9집. 그 이전에 1집은 1994년, 2집은 1995년, 3집은 1996년, 4집은 1997년, 5집은 1998년, 6집은 1999년에 간행된 바 있다. (2) 2000년 충북향토문화연구소의 「충청북도의 고서」 3집. 그 이전에 1집은 1997년, 2집은 1999년에 간행된 바 있다. (3) 2003년 안동대학교 중앙도서관의 「古書目錄」 2집. 그 이전에 1집은 1994년에 간행된 바 있다.

### 3. 불명 서지사항의 기재

불명 서지사항이란 기술에서 기재사항을 알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그중 편저자미상, 간사사항미상, 그리고 판식의 전부나 일부가 없는 것에 대해서 기재한 고서목록이 효율적이냐 아니냐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 3.1 편저자사항 미상

고서목록에서 편저자가 미상인 것은 대개 ‘著者未詳’이나 ‘編者未詳’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한 목록으로 21세기에 나온 것의 하나는 [韓國銀行 古書解題]이다. 몇 개의 실례를 살펴보자.

關防要覽 / [撰者未詳].(194면)  
敦寧府廣韻帖 / [編者(朝鮮)未詳].(374면)

이것은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 : 고서용」에 의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 규칙 1.6.6의 1)에서 ‘저자표시가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료 이외의 다른 정보원에서 저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각괄호([ ])로 묶어 보기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著者未詳]’이나 이와 상당한 어구를 각괄호([ ])로 보기한다’고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하고 있다. (21면)

古今命星圖 / [著者未詳]  
佛說大報父母恩重經科判 / [撰者未詳]

이렇게 저자미상이라고 기재한 21세기의 고서목록으로는 대표적인 것은 「한국은행 고서해제」 외에 「해외전적문화재조사목록」 및 「일본봉좌문고한국전적」 등이 있다. 전자의 목록에 나타난 예를 살펴보자

당경전(張瓊傳) △ [著者未詳].(129면)  
儒胥必知 △ [不著編者].(82면)

이러한 방법은 이미 21세기 이전의 고서목록에서도 흔히 사용한 방법이다. 그런 목록으로 대표적인 것은 서울대학교 부속도서관에서 1965년부터 발간된 각종 고서목록(1966, 일사·가람 文庫 고서저자목록, 65면)류,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1집, 257면)류이다. 그 외에도 「개명대학교 중앙도서관고서목록』(106면),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고서목록』(53면), 「단국대학교 율곡도서관 한적목록』(48면) 등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사용하여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저(찬, 편)자미상’이라고 기재하는 규칙으로는 천혜봉 저 「古書分類目錄法(下卷)」(104면)이 있다. 백린 편 「고서목록규칙」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秋壽閣收草. [著者未詳]… (28면)  
[歌詞六種] [著者 및 年紀未詳] (28면)

그러므로 기존의 고서목록에서는 대개 위의 규칙에 의거해서 著者未詳이라고 기재해 주고 있다. 물론 이렇게 하면 著者が 未詳인지, 編者が 未詳인지, 譯者が 未詳인지 확연히 구분되어 좋다. 그러면 著書인지 編著인지 譯書인지 분명하여 편리하다.

이와 같이 각종 고서목록에서 저자미상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고서목록규칙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저자가 미상이면 그렇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원칙에 따른다 해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고서에는 저자를 모르는 도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신서처럼 간혹 저자를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저자미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서지적 사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고서는 그 반대이니 문제이다. 또 어떤 고서목록은 특정 주제에 가면 상당수가 저자가 미상인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의 「보정 규장각도서한국본총목록」에서 (689-691면) 題評에 분류된 도서를 보면 39개의 목록 중에 18개의 목록이 저자미상으로 되어 있다. 또 「(보정)규장각도서한국본총목록」에서 (510-511면) 사평·사초에 분류된 도서를 보면 21개의 목록 중에 12개의 목록이 저자미상으로 되어 있다. 이런 현상은 다른 고서목록에서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쯤 되면 저자미상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재고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자나 편자를 미상이라고 기재한다면 역자, 주석자, 번안자, 필사자, 삽도자, 작도자가 미상인 경우도 미상이라고 기재해주어야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자나 편자 이외의 미상인 경우는 거의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저자미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번잡하다는 증거이다.

특히 사본인 경우 대부분 필사자를 알 수 없다. 고서에서 사본이 차지하는 比率는 엄청나다. 국회도서관에서 발간된 「한국고서종합목록」에 보면 총 40,591종의 고서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간본이 24,727종이고, 사본이 15,864종이다. 이 목록은 사본과 간본의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사본의 종류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게 한다. 이렇게 많은 사본은 거의 대부분 필사자가 미상이다.

그러므로 사본의 저자를 몰라서 ‘저자미상’이라고 기재한다면 그 필사자를 모를 경우도 ‘筆寫者未詳’이라고 기재해야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본은 ‘筆寫者未詳’이라고 기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으로 번잡한 일이다.

그래서 고서목록에서 저자미상인 경우는 규칙에 의하지 않고 기재 자체를 생략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21세기에 간행된 고서책자목록으로 상당수가 저자를 모를 경우 ‘著者未詳’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아예 생략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고서·고문서목록(味山文庫)」과 「고서목록 : 南齋文庫(제1집)」,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의 「古書目錄」, 안동대학교 도서관의 「고서해제(1-3집)」 등의 고서목록이 그러하다.

이렇게 저자미상이라고 기재하는 목록이 그렇게 많지 않는 것을 보면 그 방법이 번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증거일 것이다. 따라서 저자미상인 경우는 그 사실을 처음부터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 3.2 간사사항 미상

고서목록에서 간사사항이 미상인 것은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간사사항미상은 저자미상보다 더 철저

하게 기재한다. 비록 저자미상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미상인 간사사항은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21 세기에 나온 고서목록에서 간사사항미상이라고 기재된 유형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간사지, 간사자, 간사년이 모두 미상인 경우에는 간사사항미상이나 발행사항미상이라고 하나로 종합하여 기재하거나 아니면 세 개를 따로 따로 기재하는 한다.

[發行事項不明](안동대 고서해제, 1집, 147)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한은고해, 102)

그리고 간사사항중 두 개를 모를 경우에는 그 두 개를 미상이라고 기재하고, 한 개를 모를 경우에는 그 한 개를 미상이라고 기재한다.

먼저 두개를 모를 경우에는 간지, 간자, 간년 중에서 어느 것 하나는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간지를 알면 간자와 간년을 모르고, 간자를 알면 간지와 간년을 모르며, 간년을 알면 간지와 간자를 모르므로 그 모르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미상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全州 : [刊所未詳], [刊年未詳](영남남재, 121)  
[刊地未詳] : 西山書院, [刊年未詳](영남남재, 456)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萬曆46(1618)( 한은고해 460)

그리고 한 개를 모를 경우는 간지와 간자와 간년 중 어느 하나를 모르므로 그 모르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미상이라고 기재하면 된다.

[刊寫地未詳] : 元重舉, 英祖48(1772)( 한은고해 338)  
慶北尙州 : [發行處不明], 光武8(1904)( 안동고해 2집 708)  
星山 : 雙溪寺, [刊年未詳](영남남재, 183)

이와 같이 간사사항 중 일부를 모를 경우에는 그 모르는 부분을 미상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재고해 보아야 좋을 것 같다. 고서의 간사사항 중에서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것은 간사년이다. 이런 경우 간사년만 기재하면 되지 구태여 번잡하게 간사지미상, 간사자미상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번잡하기 때문이다. 신서 목록처럼 간행지나 간행처를 간혹 모를 경우에는 기재하는 것이 분명하여 좋겠지만 고서목록처럼 그것을 많이 모를 경우에는 생략하는 것이 편리하다. 그래서 많은 고서목록에서는 간사사항에서 간행년만 알면 그 간행년만 기재하고 간사지나 간사자는 미상이라고 기재하지 않는다.

正祖16(1792)刊.(아사미문고 39)  
仁宗1(1545)刊.(내각문고 38)

만일 이것을 다른 고서목록처럼 간사사항을 기재한다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고서의 간사사항 중 제일 많이 밝혀진 것이 간사년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고서는 간사지와 간사년이 미상이다. 이런 경우 ‘刊寫地未詳이나’ 刊寫者未詳’이라 기재하지 않고 刊寫年만 기재하는 수가 많다.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正祖16(1792)刊.  
[刊寫地未詳] : [刊寫者未詳], 仁宗1(1545)刊.

이 얼마나 번잡하고 불필요한 수고를 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간사사항 중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 모르는 부분만 생략하면 아주 간편하고, 편리할 것이다. 따라서 간사사항 전체를 모를 경우에는 그 전체를 생략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일부의 목록에서는 간사지미상이나 간사자미상은 기재하지 않으나 간년미상은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작성된 고서목록은 결코 효율적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상인 부분은 모두 생략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그러한 21세기의 고서목록으로는 용인대학교 전통문화연구소의 「古書目錄」이 있다. 그 이전의 목록으로 미상의 간사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고서목록(제1-2집)」이 있다

## 3.3 판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는 것

고서목록의 형태사항에서 어떤 사항이 없으면 ‘無何事項’이라고 기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를테면 계선이 없으면 ‘無界, 어미가 없으면 ‘無魚尾’이라고 기재한다. 21세기에 나온 대부분의 고서목록이 그러하다. 물론 이런 방법은 그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몇 개의 예를 들어보자.

無匡廓, 無界, 半葉 10行 20字, 註雙行. 無魚尾. (아사미문고, 58)  
 四周無邊 半葉 26.9 × 13.4 cm, 無界, 行字數不整, 無魚尾 (한은고해, 239)  
 四周無邊, 無絲欄, 行字數不整, 無魚尾 (한은고해, 282)  
 四周雙邊, 半廓 21.2 × 13.7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下黑口 一部分 上下黑口, 無魚尾 (영남남재, 185)

물론 이러한 방법으로 기재하면 분명하여 좋을 것이다. 그러나 너무 번잡하며 이렇게 기재되어야 할 고서가 너무 많다. 이런 형태사항들이 소수라면 기재하여도 별 문제가 없지만 많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한다면 無匡郭, 無界, 無魚尾, 無絲欄 등의 경우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無大字, 無(小字)註雙行, 上無黑口, 下無黑口 등도 기재해야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사항은 없다고 ‘無’라고 기재하고, 어떤 사항은 있지만 생략한다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관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항이든지 없으면 전부 無라고 기재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고서목록에 나타난 목록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다. (궁내청 서릉부, 46)

金石韻府 △ 醉愚(?)自筆. 寫本. 庚辰年(?)寫. △ 不分卷 1冊. 半葉 7行 10字, 26.4 × 13.4 cm. 線裝(4針綴).

이 목록에서는 판식에서 없는 것은 일체 생략하였다. 그러므로 일관성이 있는 기재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없는 판식을 ‘無’라고 기재하여 보자.

無匡郭, 無界, 半葉 無大字, 半葉 (中字) 7行 10字, 26.4 × 13.4 cm, 半葉 無註雙

行. 白口, 無魚尾

상당히 번잡해진다. 다른 없는 판식사항을 다 ‘無’라고 기재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匡郭의 크기는 無匡郭이므로 기재될 것이 없고, 본문의 글씨는 中字이므로 그 行字數를 기재하면 되고, 黑口는 없으니까 반대로 白口라고 기재하면 된다. 만약 版式事項에서 없는 것을 ‘無’라고 기재한다면 판식을 기재하는 목록에서는 一律的으로 匡郭, 匡郭의 크기, 界線, 大字, 中字, 小字, 黑口, 魚尾 등의 항목이 판식사항에 기재되어야 한다. 즉 해당 판식이 있으면 그것을 기재하고, 없으면 ‘無何何’라고 기재해야한다. 그러면 판식사항 중 항자수만 있는 경우 광곽의 크기만 생략하고 나머지는 모두 ‘無何何’라고 기재해야 한다. 정말로 번잡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복잡한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판식에 없는 것은 전부 생략하면 된다. 그러면 위에 든 목록의 판식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기재하면 된다.

半葉 7行 10字

이와 같이 판식을 기재하여도 그 중에서 무엇이 없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판식에서는 없는 사항은 처음부터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無’라고 하면 없다는 말이 되므로, 없으면 기재하지 않으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번잡하게 기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기재하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이지 결코 목록규칙적인 방법은 아닌 것이다. 목록규칙에서 형태사항의 기재는 있으면 기재하고 없으면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앞에서 예로 든 「아사미 문고목록」, 「한국은행 고서해제」, 「남재문고 고서목록」 등의 예는 아래와 같이 아주 간편하게 기재된다.

半葉 10行 20字, 註雙行

半葉 26.9 × 13.4 cm, 行字數不整

行字數不整

四周雙邊, 半廓 21.2 × 13.7 cm, 有界, 10行20字, 註雙行, 下黑口(一部分 上下黑口)

만일 어미가 없어서 ‘無魚尾’라고 기재한다면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가 있다면 ‘有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라고 기재해야 될 것이다. 현대 목록규칙의 형태사항에서 이렇게 없다고 ‘無’라고 기재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고서목록에서도 이 방법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판식은 형태사항의 일부이며, 그 형태사항에서는 없는 것은 기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형태사항에서 판식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插圖이다. 그 삽도표시를 보면 없으면 처음부터 생략하지 無插圖, 無地圖, 無肖像, 無設計圖, 無圖表, 無書式이라고 기재하지 않는다. 국제적인 목록규칙에서 이들 사항이 없으면 기재하지 않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만약 삽도류에서 없는 사항을 ‘無何何’라고 기재한다면 삽도류에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열거하여 그와 같이 기재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위에서 열거한 사항 중 插圖와 肖像만 있는 책의 목록이라면 地圖, 設計圖, 圖表, 書式 등과 같이 없는 사항도 아래와 같이 無何何라고 일일이 표시하고, 그 다음에 판식을 기재해야 할 것이다.

不分卷 1冊. 插圖, 無地圖, 肖像, 無設計圖, 無圖表, 無書式, 四周雙邊, 半廓 21.2 × 13.7 cm, 有界, 無大字, 10行20字, 無註雙行, 下黑口, 上下內向黑魚尾

그런데 삽도사항에 표시될 수 있는 것은 이것보다 더 많다. 그런 것들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無’라고 다 포함시켜 기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삽도표시에서 그렇게 기재하는 목록은 없다.

그러므로 판식에서도 없는 것을 ‘無’라고 기재하지 말고 插圖表示처럼 기재하지 않도록 해야 목록의 원칙에 맞는 것이다. 판식은 다소 개별성이 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형태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版式에서 魚尾나 版心이나 界線이 없다면 無魚尾, 無版心, 無界라고 기재하지 않아야 삽도표시와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판식에서 無라고 기재하는 것은 전통적인 목록의 작성방법일 지는 모르나 분명히 현대 목록규칙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版式表示에서도 插圖表示에서처럼 이 방법에 따라서 없는 것은 기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한 고서목록으로 21세기에 간행된 것은 송일기·노기춘 두 분이 엮은 「海南綠雨堂의 古文獻：第1冊，第2篇 文獻書誌，제1부 文獻目錄」과 용인대학교 「古書目錄」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금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不明 書誌事項을 생략한 고서목록도 있으나 대개는 簡略式 古書目錄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아무리 간략식 목록이라고 해도 불명 서지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발전적인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런 목록들에 입각해서 우리실정에 맞는 고서목록을 작성 발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판식표시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계선표시이다. 界線은 대개 없으면 無界, 있으면 有界라고 기재한다. 이와 같이 계선표시는 없는 경우만 '無界'라고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경우는 '有界'라고 표시하여 다른 판식표시와 달리 그 표시방법이 이원화된다.

그렇다면 界線의 경우도 없으면 '無界'라고 표시하고, 있으면 '界'나 '界線'이라고 표시해야 일관성이 있는 것이다. 즉 있으면 그대로 '界'나 '界線'라고 기재하면 되지 구태여 '有'자를 붙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기재한 21세기의 고서목록으로는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의 「고서·고문서목록」이 있으며, 그 이전의 목록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고서목록(제1-4집)」과 부산시립시민도서관의 「고서목록」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무계라고 기재하더라도 유계라고 기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서지사항의 표시와 일원화되므로 한층 더 진보된 양식이라 할 수 있다.

만일 판식에 界線이 있어서 '有'字를 붙여서 有界라고 한다면 형태사항이나 판식에서 기재되는 사항에는 모두 '有'字를 붙여야 일관성이 있게 된다. 그렇지 않은 목록을 가지고 설명하여 보자.

2卷 1冊. 圖. 四周單邊, 半廓 23.5×16.9 cm, 有界, 半葉 10行 20字, 內向 2葉花紋魚尾. 31.7×21.6 cm. 線裝. (궁내청 서릉부, 61)

위의 목록은 일본 궁내청 서릉부 한국본 목록에 수록된 「兩先生四七理氣往復

書」 형태사항과 판식표시이다. 이 목록에서는 계선이 있는 경우만 ‘有字’를 붙이고 있다. 여기에서 있으면 ‘有字’를 붙이고, 없으면 ‘無字’를 붙여 보면 아래와 같다.

2卷 1冊. 有圖 有四周單邊 半郭23.5 × 16.9 cm, 有界, 半葉 無大字, 有10行 20字, 無註雙行. 有內向2葉花紋魚尾. 31.7 × 21.6 cm. 線裝

이렇게 하면 아주 일관성이 있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와 같이 작성되는 목록은 없다. 아무리 일관성 있게 목록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번잡하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꼼꼼이 생각해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금 고서목록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선점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자꾸 舊態에 얽매어 ISBD의 방식을 도외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형태사항의 판식표시에서 이런 모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어떤 판식사항이든지 없으면 생략하고, 있으면 ‘有’라는 어구를 붙이지 말고 판식의 구체적인 명칭을 기재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사본인 경우 대부분 판식이 없다. 고서에서 사본이 차지하는 比率은 엄청나다. 이것은 이미 「韓國古書綜合目錄」에서 寫本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다. 이처럼 많은 사본이 거의 대부분 판식이 없다.

그러므로 사본에서 판식이 있는데 그 중 어미가 없어서 ‘無魚尾’라고 기재한다면 판식 자체가 없는 대부분의 사본은 각 판식 항목을 ‘無何何’라고 기재하여야 일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즉 부분적으로 없는 것은 ‘無何何’라고 기재하지만 판식 자체가 없는 것은 생략한다. 그러한 고서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참으로 일관성이 없는 방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식에서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기재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판식 중 한 부분(魚尾)이 없거나 전체(匡郭)가 없는 목록은 아래와 같이 작성된다.

不分卷 1冊. 四周雙邊, 半郭 18.1 × 12.8 cm, 有界, 半葉 10行 19字, 註雙行. 無魚

尾. 23.3×17.3 cm. 線裝(4針綴裝). (궁내청 서릉부, 66)  
2卷 2冊. 無匡郭. 無界, 半葉 12行 字數不定 無魚尾 18.9 × 11.8 cm. 線裝(4針綴). 楮紙. (궁내청 서릉부, 90)

이러한 고서목록으로 21세기에 간행된 것은 궁내청 서릉부의 목록이 있다. 일관성이 있어서 아주 좋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너무 번잡하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판식에서 없는 것은 기재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예를 그 방법에 맞추어서 기재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된다.

不分卷 1冊. 四周雙邊, 半郭 18.1 × 12.8cm, 有界, 半葉 10行 19字, 註雙行. 23.3 × 17.3. 線裝(4針綴裝).  
2卷 2冊. 半葉 12行 字數不定 18.9 × 11.8cm. 線裝(4針綴). 楮紙.

이와 같이 위의 예에서는 無魚尾가 빠지고, 아래의 예에서는 無匡郭, 無界, 無魚尾가 빠졌다. 이런 사항들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엇이 빠졌는지 분명하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無何何'라고 기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판식 자체가 없거나 일부가 없는 것은 아예 기재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만약 판식이 없다고 해서 대부분의 사본을 無匡郭, 無界, 無魚尾 등이라고 기재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번잡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본의 판식을 효율적으로 기재하자면, 판식 자체가 없거나 부분적으로 없으면 처음부터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한 고서목록으로 21세기에 발간된 것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전에 간행된 목록으로는 1987년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의 「古書目錄(재집)」이 있다. 그리고 1995년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의 「古書目錄」은 이러한 방법이 사본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나 간본에는 적용되고 있으므로 역시 같은 종류의 목록이라고 볼 수 있다. 판식은 이런 방법으로 기재해야 효율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결 론

21세기의 고서목록의 형태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곳에 수록된 목록의 서명저자 사항, 간사사항, 형태사항에서 불명의 서지사항은 ‘未詳’이나 ‘不明’이라고 기재하지 않는 것이 간편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分析檢討하여 보았다.

21세기의 고서목록은 그 이전 고서목록에 비해서 발행 중수가 적고, 수록 목록이 많지 않으며, 해제가 적지 않게 첨가되어 있다. 그 까닭은 새로 정리된 고서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시 그 이전의 목록처럼 불명 서지사항은 같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본고에서는 서명저자사항불명, 간사사항불명, 판식과 그 일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처리 방법을 다루어 보았다. 서명저자사항이나 간사사항에서 어떤 사항이 미상인 것이 있으면 著者未詳, 編者未詳이나 刊寫地未詳, 刊寫事項未詳 등이라 기재하고, 형태사항의 판식표시에서 어떤 사항이 없는 것은 無匡郭, 無魚尾, 無界 등이라 기재한다.

이처럼 서지사항이 불명인 것은 何事項未詳, 無何事項이라고 기재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고 비능률적이다. 왜냐하면 고서에는 불명인 서지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신서처럼 없는 서지사항이 아주 소수라면 있는 것과 있는 서지사항과 명확하게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何事項未詳, 無何事項이라고 기재하여 주어도 업무상 큰 불편이 없을 것이다.

사물을 표시할 때 없는 것이 훨씬 많다면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만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와 같이 고서목록에서도 모르는 서지사항이 많다면 그 서지사항을 생략하고, 아는 서지사항만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金南碩. 「資料目錄學」. 第3增補版. 대구: 啓明大學出版部, 1996.
- 김태수. 「목록의 이해」.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1999.
- 도대현. “한국목록규칙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대학원  
2002.
- 姚名達. 「中國目錄學史」.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民國56(1967).
- 千惠鳳. 「古書分類目錄法」. 上下.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70.
- 千惠鳳. 「韓國 書誌學」. 서울: 민음사, 1977.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전28권. 초판7쇄. 성남: 동연구  
원, 1994~96.
- 본문에서 직접 대상이 된 문헌목록은 그 수량이 많아서 생략함.

